

# “선생님들의 도전 · 모험 적극 지원”

천호성 교육감, 초중등 1급 정교사·신규 교육전문직원 대상 특강… 전북교육 방향·비전 공유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사와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전북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며 현장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 교육감은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구수원실에서 초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 2100여명과 신규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500여명 등 총 260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신임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정책 방향을 현장 교사와 학교 지원 업무에 담당하게 될 교육전문직원들에게 알리고, 전북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 교육감은 이날 강연에서 교사 재직 시절의 경험과 의미 있었던 수업 사례, 교육 현장에서 느꼈던 보람, 인생에서 마주한 도전과 모험의 순간들을 소개하며 참석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천 교육감은 “현장에서 교사로 고군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구수원실에서 초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 2100여명과 신규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500여명 등 총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분투하던 시절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교육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학교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성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각자의 역할에 맞는

지역 상상과 협력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좋은 수업의 의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수업이 가장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시간이 교사와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철학과 학습관을 다시 돌아보고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주어진 교육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전하고 모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선생님들의 도전과 모험을 언제나 지원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전북교육 슬로건인 ‘모두가 빛나게 다함께 새롭게’의 의미도 설명하며 “모든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각자의 소질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와 교육전문직원이 전문성과 교육철학, 비전을 바탕으로 당당히 도전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레이크 그로브 초등학교(Lake Grove Elementary School)와 시애틀한국교육원에서 2026 여름캠프 및 한국어교원 연수를 진행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 미국 현지서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확대 | 전북교육청, 시애틀한국교육원과 국제교육협력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국 시애틀한국교육원과 함께 한국어교육과 문화 교류를 위한 국제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확대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레이크 그로브 초등학교(Lake Grove Elementary School)와 시애틀한국교육원에서 2026 여름캠프 및 한국어교원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시애틀 지역 학생과 한국어교육 담당 교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캠프 운영을 위해 전문 강사와 한국어교육 수석교사를 현지에서 지원하고, 전북교육청 글로벌 브릿지 캠프 학생들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 교류 모델 구축에 힘썼다.

시애틀 지역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을 비롯해 나전칠기 공예, 태권도, 북청시자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북교육청 글로벌 브릿지 캠프에 참가한 학생 20여 명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미국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며 영어와 한국어를 활용한 소통, 문화 교류, 공동체 활동을 이어갔다.

한국어교원 연수 프로그램도 현지 교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연수에 서는 한국어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계기 교육, 한국 문화 교육, 국제 교류수업 사례 등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운영됐다.

참여 교원들은 다양한 수업 자료와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어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 문화를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수 역량을 강화했다.

또 전북지역 교원과 미국 현지 한국어 담당 교원들은 네트워크 교류 시간을 갖고 국제교류수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공동수업과 학교 간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오상근 기자

완주교육지원청, 7일까지

여름방학 학습코칭 캠프

완주교육지원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학습 습관 개선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민)은 관내 초·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 여름방학 학습코칭 캠프 및 학습상담실’을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방학 학습캠프에는 완주지역 초·중학생 45명이 참여해 시간 관리, 공부 환경 조성, 효과적인 암기 방법 등 자기주도학습 실천 방법을 배우고 있다.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정서 성장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학습 역량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성장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란도란 학습상담실을 통해 학습코칭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확대함에 따라 학생과 교사가 시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사)국제인공지능융합협회의 협력에 내부위원 9명과 외부위원 6명으로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 시·도교육청 자료 분석과 현장 교사의 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전북교육청, 전국 최초… AI 비판적 활용 · 윤리교육 기반 마련

내달 1일부터 학교에 적용… 학생 · 교사 · 학부모 역할 명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전북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디지털 기초소양 및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해 AI가 생성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교육 과정에서 AI를 주제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가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사)국제인공지능융합협회의 협력에 내부위원 9명과 외부위원 6명으로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 시·도교육청 자료 분석과 현장 교사의 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총 7장 20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에는 총칙, 목적과 원칙,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AI 활용 윤리, 교육 지원, 전북형 AI 리터러시 교육 보완 및 적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본 원칙으로 △인간의 주체성 △비판적 검증 △책임 있는 윤리적 활용 △학생 권리 보호와 정서적 안전 △인문 · 생태 · 신업을 연결하는 전북형 AI 교육 등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 학생 · 학부모 · 교사 · 학교의 역할과 교육청의 책무를 각각 조항으로 명시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별 책임과 실천 방향을 구체화했다. 윤리 관련 내용에는 AI 답변의 오류나 편향 가능성을 공식 출처를 통해 검증하고, 과제와 평가에서 AI를 활용한 경우 서비스 종류와 활용 목적·범위를 투명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기준이 포함됐다.

또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허가 없이 합성하지 않도록 하는 등 AI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기준도 제시했다.

교사의 경우 수업 설계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최종 확인과 의사결정은 교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했으며,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의 정서적 기록 작성에는 AI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북형 AI 교육 방향으로 공공 인공지능(Public AI)의 가치를 강조하고, 경제적 취약계층과 아주 배경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방안도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을 가진 규정이지 아닌 교육공동체의 자율적 실천을 위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특정 AI 서비스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학교별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 첫 두 대 피아노 협주곡

전주대 동문 연주단체 ‘클래식스토리’

7일 소리문화전당 연지홀서 정기연주회

전주대학교 공연예술학과(前 음악학과) 김영신 교수의 졸업생 제자들로 구성된 ‘클래식스토리(Classic Story)’가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제2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북 최초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만으로 구성된 연주회다. 일반적인 피아노 독주나 협연과 달리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대규모 무대로, 높은 연주력과 긴밀한 앙상블이 요구되는 협주곡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클래식스토리는 2005년 결성된 연주단체로, 음악적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바탕으로 꾸준히 정기연주회를 이어오며 올해도 23회를 맞았다. 동문 간의 예술적 교류와 후학 양성, 지역 클래식 문화 발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는 강정금·박종관·김어진·김주연·문하니·김은수·최다현·최세빈·문보미·김미나가 무대에 오르며, 지휘자 성준홍이 함께해 두 대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대표 협주곡들로 구성됐다. 공연 연 전반부에서는 막스 브루흐(Max



Bruch)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내림가장조 Op. 88a’ 전악장을 연주하며, 이어 펠릭스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내림가장조 MWV Op. 3’악장을 선보인다. 휴식 후에는 프랑스 프랑크(Francis Poulenc)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내림가장조 FP 61’ 전악장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한편 클래식스토리 제23회 정기연주회는 전주대학교 재학생 초청 행사와 함께 일반 관객 대상 유료 공연으로 진행되며, 전 주티켓박스를 통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카카오톡 기반 상담 서비스 시작

전북교육청, ‘민원톡톡’ 개설… 오늘부터 1대1 채팅상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교육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기반 1대1 채팅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오는 5일부터 카카오톡 채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톡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교육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교육정책 공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7월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채팅상담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화 상담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각종 서식, 누리집 주소(URL), 주요 정책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개설된 ‘민원톡톡’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주요 상담 분야는 전 · 편입학, 자녀 학비 지원 등 교육 관련 문의를 비롯해 각종 시험 안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이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톡톡’을 검색하거나 전북교육청 누리집 하단의 ‘채팅상담’ 메뉴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김현주 전북교육청 총무과장은 “1대1 채팅상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과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시간 소통을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신뢰받는 열린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우석대 사격부, 경찰청장기 전국대회 승전보

오현식, 개인전 정상… 여자 권총 단체전 3위로 우수기량 입증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스포츠단 사격부가 제35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며 우수한 기량을 입증했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사격부가 남자대학부 개인전 우승과 여자대학부 단체전 3위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7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국내 주요 사격대회로, 중등부 · 고등부 · 대학부 · 일반부 · 장애인부 등 전국 408개 팀 2954명의 선수가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우석대학교에서는 남자대학부 10m 무빙타겟(정상) 개인전에 출전한 오현식(정보보안학과 1년)이 뛰어난 집중력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여자대학부 25m 권총 단체전에서는 한승현(체육학과 4년), 안민혜(스포츠지도학과 4년), 김나영(체육학과 4년), 김혜주(스포츠지도학과 2년)가 호흡을 맞춰 3위에 오르며 동메달을 차지했다.

김성민 감독은 “합상 자체도 의미가



우석대학교 사격부 오현식

있지만 선수들이 큰 대회에서 자신의 기량을 끝까지 유지하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점이 더욱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선수 개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무대에서 꾸준히 좋은 결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